

시간 초월한 경건함과 아름다움

동화사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 유물展 (9월 3일 까지-동화사 특별전시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는 4월 12일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에서 동화사 대웅전 출현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물 전시대법회를 봉행하고 9월 3일까지 특별전시회에 들어갔다.

이날 전시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복장유물은 동화사가 지난해 10월 대웅전의 보존 복원 공사를 위해 삼존부처님을 이운하던 중 발견된 것. 동화사는 6개월 여 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복장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령통 일체,



4월 1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조해녕 대구시장(맨 오른쪽)이 후령통과 오보병을 관람하고 있다.

보물급 전적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다. 또 이를 기념해 1250년 전 통일신라시대 사경원에서 봉행했던 전통사경 재현법회도 열렸다. 한국사경연구소장 김경호 법사에 의해 기획된 사경재현법회는 국보 제 196호 신라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사경기에 나타난 의식과정을 재현한 것. 원만사 유치원 어린이 20여명이 흥의동자 황의동자로 길을 밝히고 심인고등학교 취타대가 동참하는 등 부처님 법신사리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법당에서 연으로 모셔와 사경법회장인 통일기원대전까지 이운 봉안하는 장엄의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진신사리·후령통 일체 등 공개 통일신라시대 전통사경도 재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부처님 복장물 및 사리친견대법회와 전통사경재현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에는 희망을 줘서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라불교, 고려불교를 오늘날 이 시대에 재현시켜 우리불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신사리를 사경법회장으로 모셔가는 이운식.

동화사는 9월 3일 대웅전 보존 복원불사를 마친 뒤 박물관에 보관할 복장물을 제외한 복장물, 사경법회 등을 통해 새로 조성한 복장물을 삼존불에 봉안할 예정이다. (053)982-0101

어떤 유물들을 볼 수 있나

대웅전충장상방문에 의하면 대웅전 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웅정 5년(영조 3)인 1727년 5월 12일에 납입된 것으로 전적류와 후령통이 주를 이룬다.

이 중 전적류는 총 수량이 100여권이 넘는다. 발원문을 비롯해 고려사경,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화엄경> 등의 경전과 진언문 및 15세기 이후에 간행된 목판본이 주를 이룬다. 이번 일전에 공개된 고려시대의 사경 2점과 고려와 조선전기 목판본은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약사여래에서 발견된 <상지은니무상의경 권하(橡紙銀泥無上依經卷下)>와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94(橡紙銀泥大寶積經卷第九十四)>는 상수리 열매로 염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 94>

색한 하지에 은가루로 경전을 베껴 쓴 고려시대(14세기)의 사경으로 보물급의 가치가 있다. 또, <대방광불화엄경>도 고려시대(14세기) 목판본 경전으로 표지 일부가 얼룩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목할 만하다.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등

전적류만 100여권

'상지은니무상의경 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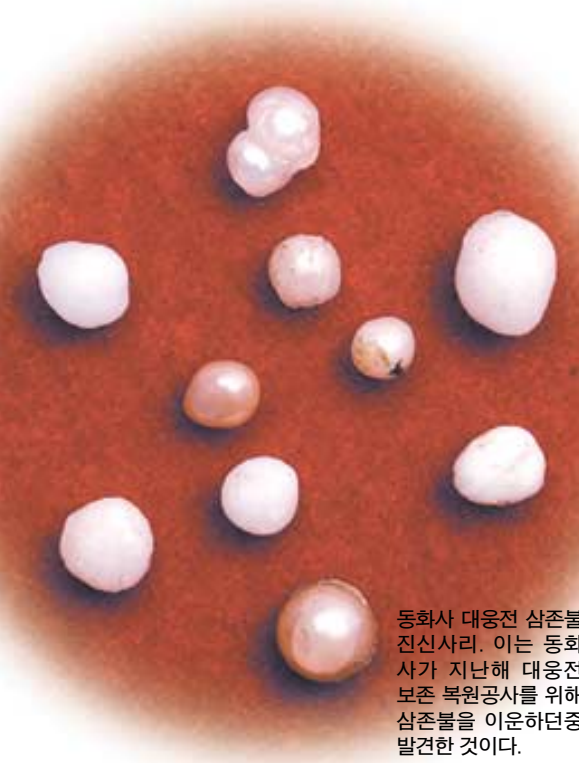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 94'

고려시대 사경으로 보물급 가치

그 외 조선전기 간행된 목판본으로 <묘법연화경 권제4(1417년)> <지장보살본원경(1474년)>이 전시되고 있는데, <지장보살본원경>은 김수운(1410~1481)의 발문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대불정수능엄경>(1609)과 <묘법연화경>(1629) 등도 선보인다. 다라니로는 1725년 동화사에서 간행된 육자대광명진언을 비롯해 일체여래비밀전시사리보현진언, 철구지불보심준제진언, 진언집 등이 진열대에 온다.

사각의 동체 후령통은 복장물을 넣는 복장기로 뚜껑의 끝처리는 팔엽(八葉)을 형상화한 연꽃으로 마무리했다. 후령통 안에는 각각 오방을 상징하는 5색의 동체 오보병과 사리통이 있으며, 그 안에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원형, 금강저, 채반, 산개 형태의 지류와 각종 곡식 약초 등이 들어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화사는 후령통 일체를 일반에 공개, 당시 복장물 봉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동화사 대웅전 삼존불 진신사리, 이는 동화사가 지난해 대웅전 보존 복원공사를 위해 삼존불을 이운하던중 발견한 것이다.



아미타여래 후령통 내부 납입품들.

■복장물은?

불상·탱화에 영원한 생명력 부여 의미

복장물이란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면서 내부에 봉안하는 여러 가지 유물을 말한다. 법식에 맞게 이들 유물을 넣음으로써 불상이나 탱화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불상이나 탱화에 언제부터 복장의식이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부처님 입멸 후 8개의 국가로 사리가 나누어져 사리탑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공양물을 함께 넣는 사리장엄 의식이 발달했다.

이후 점차 의식의 형태와 복장물의 목록이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복장의식과 복장내용이 <조상경>으로 정립되면서 정형화했다.

불상의 경우 복장물은 사리와 오보병을 담은 후령통을 중심으로 경전(법사리)과 다라니를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탱화의 경우 복장상이라는 주머니에 불상과 비슷한 유물들을 넣어 매달거나 탱화 뒷면에 넣어 배제한다.

■복장물 납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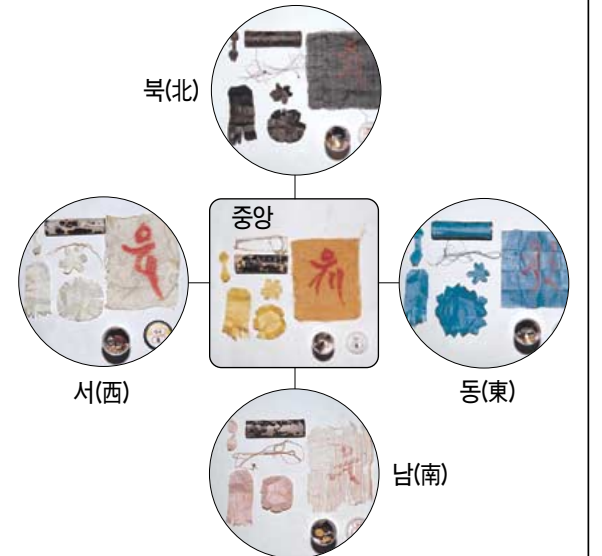
'조상경' 근거로 사리 오보병 오경 등 차례따라

불상에 복장을 넣을 때는 <조상경>에 의해 사리와 사리통, 오보병, 오경, 오곡과 오색사, 불경류, 의복, 다라니 등을 넣는다. 복장물은 후령통과 이를 싸는 황초보자기에 있는데 보자기 사이에 발원문과 주문을 넣는다. 복장물의 핵심인 후령통은 금속이나 나무, 혹은 종이 등으로 제작되는데 원형통이나 사각형이 일반적이고, 대체로 뚜껑에 둥근 대롱이 끼워져 내부의 오보병을 둘러싼 오색사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후령통 내부에는 5가지 색을 지닌 오보병이 들어있고, 각 병 안에는 오곡과 오향 등 많은 물건들이 법식에 따라 들어와 있다. 보통 오보병은 동·서·남·북·중앙의 방위를 상징한다.

동화사 대웅전에서 출현한 후령통에서는 6개의 병이 나왔는데 사리통으로 한 개가 더 넣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령통의 내외에 오문종자와 오경이 들어간다. 오문종자는 5방위에 따라 5가지 색의 직물에 방위마다 다른 글자를 써서 납입하며, 오경이란 다섯 개의 거울로 각 방위마다 네모(동) 원(서) 삼각(남) 반원(북) 원(중앙)의 형태로 나타낸다. 금속이나 천을 사용하는데 동화사 대웅전 복장품의 경우는 오색사로 동·서, 남·북으로 엮어서 후령통 외면에 매달아 놓았고, 중앙은 후령통 내부에 봉안돼 있었다. 이 밖에 종이로 오려 형태를 만든 오색채반, 오백저, 금강저 등을 각 방위에 맞춰 후령통에 넣는다.



UFO와 하나님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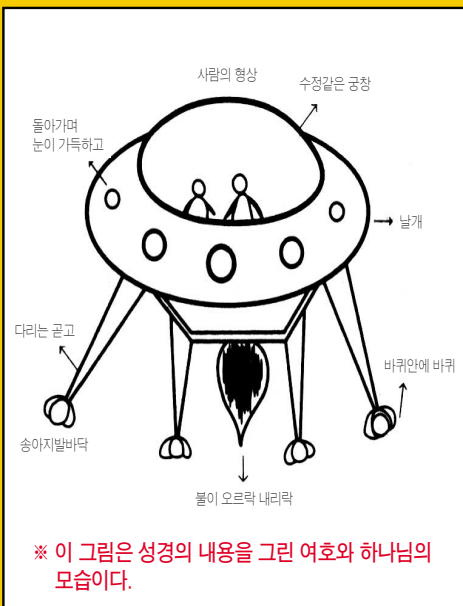
“천지창조의 비밀” 절찬리 판매중!!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UFO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신변(身邊)에 의식(意識)과 인식(認識)의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마음에 새로운 광명이 비칠 것이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색(회색)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 바퀴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썩제트분사)
-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니컬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인데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오늘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된 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 기독교(천주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100% 외계인이라고 증명된 책. 여호와는 신이 아니며 잔인한 외계인일 뿐이다.

* 이 광고는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에서 후원하는 것임. 후원에 동참하실 분은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군·心

(만의 위대한 힘)

만성지음

군의 최초 해설서

군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군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